

보도기사의 배경에 대한 이해와 그 서술에서 나서는 요구

박사 부교수 박 희 순

1. 서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보도기사가 사람들에게 새로운것을 끊임없이 알려줄수 있게 하자면 기사를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생동하게 써야 합니다.》

보도기사는 새로운 사실, 사건을 사람들에게 신속정확히 알려주는 간결명료한 기사로서 보도물에서 주요기사종류의 하나로 되고있다.

이로부터 보도학분야에서는 보도기사에 대한 연구가 적지 않게 진행되어왔다.

지난 시기 출판된 《기사론》(1986), 《신문기사론》(2008), 《출판보도편람》(2004), 《기사종류론》(2011), 《우리 신문기사에 대한 연구》(2012) 등을 비롯한 교과서, 참고서들에서는 보도기사의 개념과 특성을 밝히는데 기초하여 집필방법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그러나 보도기사에 반영되는 기본소식외 기타 여러가지 자료들을 해당 기사에서 수행하는 기능의 측면에서 논의한것은 없다.

보도기사에서 취급하는 사실, 사건은 그 어느것이나 일정한 사회력사적 및 경제문화적, 자연지리적환경과 조건속에서 발생하고 진행된다. 그러므로 보도기사에서 이와 관련한 여러가지 자료들을 안받침하여주면 사람들로 하여금 해당 사실, 사건의 발생동기와 인과관계 등을 정확히 이해하도록 하는데서 효과적이다.

따라서 보도기사를 쓸 때에는 반드시 해당 사실, 사건을 안받침하는 배경에 대하여 주의를 돌려야 한다.

이로부터 이 논문에서는 보도기사의 배경에 대한 이해를 주고 그 서술에서 나서는 일련의 문제들에 대하여 밝히려고 한다.

2. 본론

보도기사의 배경이란 해당 기사에서 알려주려고 하는 주되는 소식거리를 안받침하는 상관조건, 관계지식 등을 제시하여주는 기사의 구성부분을 말한다.

상관조건은 해당 사실, 사건이 존재하게 하는 환경과 원인이며 관계지식은 해당 사실, 사건과 련관되는 일정한 개념이나 리치 등이다.

상관조건, 관계지식은 해당 소식거리가 생겨난 시대, 환경, 문화 등과 관련한 자료들로 이루어진다.

극히 짧은 보도기사를 쓴다고 해도 그것은 사실상 복잡다단한 세계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실, 사건들가운데서 상대적으로 독자적인 소식거리를 만드는 과정이다.

그런데 모든 사실, 사건은 우연히 돌발적으로 발생하고 독자적으로 진행되는것이 아니라 다른 사실, 사건들과 호상 련결되어있다.

보도기사에서 알려주는 새 소식에는 반드시 그것이 생겨난 시대, 환경, 과학, 력사, 지

리 등과 관련되는 상관조건, 관계지식 등이 있다.

이러한 것들은 결코 보도기사에서 알려주려고 하는 새 소식과 동시에 발생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보도기사에서 알려주는 새로운 소식이 아니며 다만 보도기사의 기본소식거리를 두드러지게 하는 배경으로 될 뿐이다.

2.1. 보도기사에서 배경의 역할

보도기사에서 배경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배경은 우선 독자들의 사고를 원활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새로운 정보들이 시시각각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오늘날 사람들은 가능한 것 짧은 시간 내에 보다 많은 정보들을 알고 싶어 한다.

일반적으로 보도기사에서는 한 가지 새로운 사실, 사건을 알려주는 것이 기본이다. 그렇다고 하여 보도기사에서 언제, 어디에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였는가 하는 내용만 준다면 독자들은 해당 사실, 사건에 대하여 극히 제한된 시공간속에서 사고하게 된다.

보도기사에서 배경을 설정한다면 독자들은 보다 넓은 시공간속에서 많은 연관자료들과 함께 새 소식을 접수하게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고를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다.

례를 들어 어떤 사실, 사건의 역사적인 과정과 원인, 결과 등을 배경으로 준다면 독자들은 보도기사에서 사실,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서만이 아니라 발생 이전과 발생 이후의 사실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된다.

《로동신문》주체103(2014)년 1월 13일부에 실린 보도기사 《백두산기슭의 스키바람》을 실례로 들 수 있다.

《백두산기슭에 자리잡고있는 삼지연고급중학교에서 스키바람이 세차게 일고있다.

학교는 전국적으로도 스키타기를 많이 하는것으로 손꼽히고있다.

지난 기간 학교에서는 전국청소년겨울철체육경기들에 참가하여 스키종목에서 많은 우승컵과 메달을 수여받았다.

학교에서는 수십년전부터 겨울이 길고 눈이 많이 내리는 이 고장의 자연지리적특성에 맞게 스키운동을 힘있게 내밀고있다.

첫눈이 내리면 학교운동장에 구획을 지어 스키주로를 형성해놓곤 한다.

수업이 끝나면 학생들이 운동장에 꾸려진 스키주로에서 스키타기에 여념이 없고 휴식일이면 백두산지구 체육촌에 있는 고산스키장으로 달려가곤 한다.

백두산기슭에 눈내리는 계절이 오면 학교적인 스키경기가 진행되고 삼지연읍에서 못가까지 <갑무경비도로>를 따라 스키집단강행군도 한다.

해마다 뜻깊은 광명성절을 맞으며 진행되는 백두산밀영고향집에로의 스키답사행군은 학생들의 가슴마다에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만을 굳게 믿고 따르는 순결한 충성과 백두산악처럼 억센 신념을 더욱 굳게 심어주곤 한다.

지금 학교에서는 학급별, 학년별스키경기가 열기를 띠로 진행되고있다.

고산스키장은 한낮에도 령하 수십℃의 맵찬 추위가 계속되지만 스키경기에 열중하고 있는 학생들로 흥성이고있다.

학생들은 스키운동을 통해 체력을 튼튼히 단련하고 대담성과 용감성을 키우며 주체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억세게 자라날 신념과 의지를 더욱 굳히고있다.》

이 보도기사에서는 삼지연고급중학교에서 스키운동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소식을 전하면서 지난 시기 이 학교학생들이 진행한 스키운동정형과 그 과정에 이룩된 성과를

배경으로 주었다.

배경은 또한 기사에서 알려주려는 기본소식거리를 해석해줌으로써 독자들의 이해를 도모하는 역할을 한다.

보도기사에서 취급하는 사실, 사건들중에는 사람들이 사업과 생활에서 흔히 맞다들리게 되는 문제와 관련되는것도 있지만 그것을 이해하는데서 어떤 전문분야의 지식을 일정하게 요구하는것들도 있다.

이로부터 보도기사에서는 취급하는 새로운 사실, 사건이 독자들에게 쉽게 인식되도록 해석을 주게 되는데 이것을 배경이 맡아 수행한다.

실례로 보도기사 《관심을 모으는 생태관광》[《로동신문》 주체108(2019)년 11월 14일]에서는 글머리부분에서 생태관광에 대한 해석을 다음과 같이 주었다.

《오늘 주요산업부문의 하나로 등장한 관광업은 경제발전을 적극 추동하는 요인으로 간주되고있다.

많은 나라에서 관광업발전전략을 세우고 그에 힘을 넣고있다.

세계적범위에서 관광업이 활성화되는데 따라 그것은 점차 생태관광방향으로 발전하고있다.

생태관광은 관광객들로 하여금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자연속에서 아름다운 풍치와 동식물을 감상하면서 휴식하는 과정을 통하여 자연의 귀중함을 느끼고 자연에 대한 지식을 넓히며 생태환경보호의식을 높이고 이 사업에 스스로 참가하게 하는 관광의 한 형식이다.

생태환경은 환경보호와 지역경제개발을 동시에 추진하고 관광봉사의 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해준다.》

기사에서는 이와 같이 글머리부분에서 생태관광에 대한 해석을 준 다음 기본소식거리로서 로씨야, 캄보자, 꾸바 등 여러 나라들에서 생태관광을 발전시키기 위한 활동이 진행되고있는데 대하여 소개하고있다.

이런 방법으로 어떤 사실, 사건에 대해 보도한다면 독자들은 새로운 소식을 알게 되는것과 동시에 일정한 분야에 대한 지식도 얻을수 있다.

해석은 일정한 분야의 비교적 전문적인 지식을 보여주는 용어로 서술하여야 한다.

배경은 또한 독자들의 흥미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

보도기사에서 배경을 이루는 자료자체는 일정한 분야의 지식과 관련된것이기때문에 해당 분야에 대한 조예나 취미를 가지고있는 독자들은 기사를 흥미있게 읽게 된다.

보도기사 《관심을 모으는 생태관광》에서는 여러 나라들에서 생태관광을 발전시키는 소식을 준 다음 다음과 같은 자료를 주고있다.

《생태관광이라는 개념은 1983년 국제자연 및 자연자원보호련맹에 의해 처음으로 제기되었다. 1986년 메히꼬에서 열린 국제환경회의에서 그것이 정식 승인되어 세계 여러 나라에서 널리 쓰이기 시작하였다.

초기에 생태관광은 관광객들이 단순히 관광지들에 대한 참관활동을 하는데만 국한되었으며 안내봉사도 그에 대응하여 진행되었다.

생태관광안내가 점차 지식을 전달하는 봉사업으로 변화되면서 그에 맞게 관광객들과 일반적인 문제뿐아니라 전문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비교적 깊이있게 토론할수 있을 정도로 다방면적인 지식을 소유한 사람들로 관광안내원진영이 꾸려지게 되었다.

생태관광은 관광안내원들이 관광객들과 함께 천연원시림이나 야생동물서식지, 자연보호구 등에 대한 관찰과 기록활동을 벌리면서 환경교육을 주는데로 변화발전하였다.

한마디로 생태관광은 참관위주로부터 교육위주로 변화되었다.

관광객들의 구성상태를 보아도 이전시기의 일반관광객들에 비해 지금은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일정한 분야의 전문지식을 소유한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있다.》

이 보도기사에서는 《생태관광》이라는 단어가 생겨난 역사적동기를 주고 생태관광의 변화발전과정을 요약하여 보여주고있다. 이것은 독자들에게 생태관광에 대한 간단한 지식을 주는것과 함께 그들속에서 생태관광에 참가하고싶은 의욕도 불러일으키게 된다.

만일 이러한 배경이 없이 최근 일부 나라들에서 생태관광을 발전시키는 소식만 준다면 독자들은 이 기사를 관심을 가지고 대하지 않을것이다.

2.2. 보도기사의 배경서술에서 나서는 요구

보도기사의 배경서술에서 나서는 요구는 우선 반드시 주제와 맞물려야 한다는것이다.

보도기사의 배경이 주제와 맞물려야 한다는것은 해당 기사의 주제해명에 이바지되게 배경의 내용이 정확히 설정되어야 한다는것을 말한다.

보도기사의 배경그자체는 새 소식이 아니다. 만일 기사에서 서술된 배경의 내용이 기본소식거리와 련관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의도 없는 군더더기에 불과하다.

보도기사의 배경이 주제와 맞물리게 하자면 배경을 이루는 자료들을 해당 기사의 주제해명에 직접적으로 련관되는것으로 정확히 선정하여야 한다.

보도기사 《전국청년학생들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대 소연지봉밀영과 무두봉밀영 답사》[《로동신문》 주체108(2019)년 12월 19일]를 실례로 들수 있다.

《...항일의 피어린 투쟁사를 심장깊이 체득하며 용기백배, 기세충천하여 답사행군길을 이어가고있는 전국청년학생들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대가 18일 소연지봉밀영과 무두봉밀영을 답사하였다.

답사행군대원들은 허리치는 눈속에서도 항일혁명투사들이 신념의 표대로 높이 추켜들었던 붉은기를 대오앞에 펴 펼 휘날리며 행군길을 다그쳐 소연지봉밀영에 도착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작전적구상에 따라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에 대한 군복, 무장장비보장과 병상차치료를 진행한 소연지봉밀영에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답사행군대원들은 밀영의 여러곳을 돌아보았다.

사령관동지의 명령을 결사관철한 투사들의 고결한 녀이 어려있는 재봉소, 무기수리소 등을 보면서 그들은 백두밀림에서 타오른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이어받아 오늘의 대진군에서 영웅청년신화를 창조해나갈 결의를 다지였다.

귀뿌리를 도려내는듯 한 강추위속에서 항일혁명선렬들이 지녔던 강인성, 투쟁성, 혁명성을 절감하며 답사행군대원들은 더더욱 뚫어쑤는 힘과 열정으로 무두봉밀영에로의 행군길을 이어갔다.

행군길에서 답사행군대원들은 간백산밀영에 대한 해설을 통하여 자주의 기치높이 전체 조선인민을 거족적인 조국해방성전으로 불러일으키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되새기였다.

무두봉밀영에 도착한 답사행군대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29(1940)년 9월 사령부직속 소부대성원들과 함께 이곳에 오시여 대원들에게 소할바령회의에서 제시된 방침을 해설해주시고 밀영이 중간련락소의 사명에 맞게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수행해나가도록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 사적내용을 들었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발자취가 스

며있는 사령부귀틀집과 혁명적구호문헌을 비롯한 사적물들을 보며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야말로 새 세대들의 가슴속에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을 만장약해주는 <백두산대학>의 교정이라는것을 절감하였다.

백두의 혁명정신을 삶과 투쟁의 교과서, 자양분으로 받아안으며 청년학생들은 답사행군길을 계속 다그치고있다.》

이 보도기사에서는 여러 문장에서 소연지봉밀영과 무두봉밀영에 깃들어있는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 수령님의 령도밑에 항일혁명투사들이 발휘한 백절불굴의 투쟁정신에 대한 해설을 줌으로써 주제해명에 이바지하고있다.

보도기사의 배경서술에서 나서는 요구는 또한 기사의 주제해명에 이바지할수 있게 적중한 위치에 놓여야 한다는것이다.

보도기사에서 배경의 위치는 고정된것이 아니다.

보도기사의 배경은 기본내용부분에는 물론 글머리나 글마감에도 놓일수 있다.

실례로 보도기사 《김일성종합대학 자연박물관과 첨단기술개발원 준공식 진행》[《로동신문》 주체108(2019)년 11월 29일]에서는 배경을 기사의 글머리부분에서 주었다.

《민족간부육성의 중심기지이며 주체과학교육의 최고전당인 김일성종합대학에 자연박물관과 첨단기술개발원이 훌륭히 꾸러졌다.

우리 나라의 지하자원과 동식물자원에 대한 종합적인 지식을 주는 교육교양거점, 과학연구보급기지로 개건된 자연박물관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주신 선물표본을 비롯한 1만여점의 각종 표본들이 14개의 부문별전시구역으로 나뉘어 진렬되어있다.

연건축면적이 1만 8 000여㎡에 달하는 첨단기술개발원은 9개의 각이한 연구개발구역들과 토론회실, 공동개발실, 전시실과 같은 학술교류구역, 강의실, 회의실을 비롯한 교육교양장소들을 그췌히 갖춘 현대적인 과학연구기지, 첨단기술제품개발기지이다.》

이 문장들은 기본소식거리인 김일성종합대학 자연박물관과 첨단기술개발원 준공식진행과정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김일성종합대학 자연박물관과 첨단기술개발원자체에 대한 해설로서 준공식의 의의를 독자들이 깊이 음미해보도록 하는데 이바지하고있다.

한편 보도기사 《전국청년학생들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대 소연지봉밀영과 무두봉밀영 답사》에서는 배경을 이루는 자료가 기사의 여러 문장속에 있다. 이 기사에서 배경자료들은 기본소식거리의 의의를 강조해주며 인식적효과를 강조해주고있다.

배경이 글마감부분에 놓인 보도기사도 있다.

《칠레에서 대중체육을 발전시키기 위해 경기장건설에 힘을 넣고있다.

19일 정부가 밝힌데 의하면 최근 이 나라에서 7개의 새 경기장이 완공되었으며 6개의 경기장이 건설중에 있다.

나라에서는 지난 4년동안에 190개의 작은 경기장들과 체육센터들이 건설되었다고 한다.》

《로동신문》 주체103(2014)년 2월 27일부에 실린 이 기사에서 마지막문장은 배경자료로 처리한것이다.

보도기사에서 배경은 이와 같이 기본소식거리를 두드러지게 하여 독자들에게 보다 정확히 인식시키고 그 의의를 부각시킬수 있는 적절한 위치에 놓여야 한다.

보도기사의 배경서술에서 나서는 요구는 또한 어휘표현들이 정확하면서도 간결해야 하며 사람들이 흥미와 만족을 느낄수 있게 엮어져야 한다는것이다.

배경은 보도기사에서 기본소식거리를 부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것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보도기사에서 배경은 새 소식을 알려주는 문장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여서는 안된다.

한편 보도기사자체가 내용이 명백하면서도 짧게 씌여져야 하는것만큼 배경은 철저히 언어표현이 정확하면서도 간결하게 씌여져야 한다.

이와 함께 보도기사의 배경은 사람들이 흥미와 만족을 느낄수 있도록 씌여져야 한다. 보도기사에서 해당 사실, 사건의 전말에 대한 장황한 설명이나 어떤 분야의 전문지식을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준다면 사람들은 지루감을 느끼고 기사를 끝까지 읽으려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실, 사건의 진상을 정확히 인식할수 있도록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의 흥미를 끌수 있게 배경을 써야 한다.

3. 결 론

보도기사의 배경은 해당 기사를 이루는 구성요소의 하나로서 새 소식의 완전성을 보장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보도기사의 배경을 서술하는 방법은 결코 고정불변한것이 아니다. 기자마다 자기의 고유한 필치가 있는것만큼 매개 보도기사의 배경도 특색이 있어야 한다.

앞으로 기자들은 특색있는 기사를 쓰기 위한 창작방법을 적극 탐구함으로써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투쟁강령을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건설에서의 새로운 비약과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한편한편의 기사가 천만대중의 심금을 울리고 시대를 선도하는데 적극 이바지되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보도기사, 배경, 자료